

##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석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 of Parental Happiness on th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Infants through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Seok-Weon Se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KSC)의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부모, 아동 설문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이다.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모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happiness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on the latter'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473 mothers, fathers, and infants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parent and child questionnaires. The structural model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verified as showing an excellent model fi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mothers' happiness directly affected their infant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but the fathers' happiness did not directly affect infants'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Second, the infants' social competence directly affected their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irdly, both the mother's and father's happiness indirectly affected an infant'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his/her social competenc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Keywords** : Mother's Happiness, Father's Happiness, Social Compet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fant

---

본 논문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ok-Weon Seo(Catholic Sangji Univ.)

email: smallstar2@hanmail.net

Received May 13, 2022

Revised July 11,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 1. 서론

인간의 삶 전체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차지하는 유아기지만 이 시기의 경험이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유아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은 유아기 이후의 발달과정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아기에 발현되는 문제행동은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기를 지나 학교부적응 문제를 야기시켜 학령기의 비행 및 범죄 등의 문제행동 발현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유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이후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발현되거나 이후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되었다[2]. 특히 최근 맞벌이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아교육기관의 취원 연령이 낮아지고 낮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3,4]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유아기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방송매체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은 발달상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대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적응능력 및 행동으로 규정된다[2]. 즉 유아가 속한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을 문제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내재화 문제행동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 불안, 신체증상, 위축 등을 포함한다[5]. 그러나 문제행동 양상이 공격행동과 충동성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달리 내재화 문제행동은 문제양상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학습의 일과를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과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6]. 하지만 유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7]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이후 학령기의 불안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상 등의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고되었다[8]. 이렇게 선행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이 유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악화되지 않고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위험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성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부모관련 변인들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유아의 개인적 특성변인 중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9-1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또래와의 관계형성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준비도를 포함해 유아기 이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12,13]. 이렇게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유아가 주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량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14,15].

구체적으로 선행연구[9,10]에서는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후 학령기에 이르러 내재화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들은 학령기에 내재화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세 무렵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이후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1]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높은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것이 내재화 문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모 관련변인을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16-18]에서 부모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행복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행복감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통합적인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부모의 주관적 요인인 성격,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서부터 객관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학력, 직업, 연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러나는 중요한 변인이다[19]. 이에 따라 부모의 행복감이 자녀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행복감을 포함하여 부모의 긍정적 심리상태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환경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0].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대인관계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2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우울감이 높아 행복감이 낮고 부정적 심리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 자녀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아버지의 행복감 역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23]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문제행동은 물론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은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친사회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등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또한 아버지 역시 행복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친사회성,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변인들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아버지 변인 역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2014)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는 2008년도 출생 유아들이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조사되어 총 1,620명의 유아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부모, 아동 설문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N=1473)

| content            | division          | N           | %         |
|--------------------|-------------------|-------------|-----------|
| Child's gender     | male              | 755         | 51.3      |
|                    | female            | 718         | 48.7      |
| Mother's education | under high school | 429         | 29.2      |
|                    | college           | 406         | 27.6      |
|                    | university        | 550         | 37.3      |
|                    | master            | 87          | 5.7       |
|                    | missing data      | 4           | .2        |
| Mother's education | under high school | 397         | 27.1      |
|                    | college           | 299         | 20.3      |
|                    | university        | 615         | 41.8      |
|                    | master            | 156         | 10.6      |
|                    | missing data      | 6           | .2        |
|                    |                   | M(SD)       | min max   |
| Child's month      |                   | 75.09(1.42) | 72.0 79.0 |
| Mother's age       |                   | 36.81(3.69) | 25.0 53.0 |
| Father's age       |                   | 39.28(4.00) | 25.0 56.0 |

###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어머니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이며, 종속변인은 유아의 문제행동이다. 매개변인으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아래와 같다.

#### 2.2.1 주관적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Lyubomirsky와 Lepper[26]의 행복감 측정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879이며 아버지의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871이다.

### 2.2.2 사회적 유능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27]의 사회적 유능감 측정 도구를 Suh[28]가 국내에서 타당화 척도를 참고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된 후 활용하였다. 총 32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주장성(11문항), 협력성(6문항), 자기통제(7문항), 책임성(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 사이의 3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48이며 협력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818, 자기통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96, 책임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777이다.

### 2.2.3 내재화 문제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Oh와 Kim[29]의 유아 행동평가척도(CBCL 1.5-5)를 활용하였다. 총 100문항,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 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내재화 문제행동을 활용하였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반응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740, 불안/우울 신뢰도 Cronbach's  $\alpha$ =.724, 위축

신뢰도 Cronbach's  $\alpha$ =.650, 신체증상 신뢰도 Cronbach's  $\alpha$ =.571이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은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든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05~1.85, 첨도의 절대값은 .07~4.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의 가정기준(왜도 절대값 2, 첨도 절대값 7이하)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    | a      | b      | c1     | c2     | c3     | c4     | d1    | d2    | d3    | d4   |
|----|--------|--------|--------|--------|--------|--------|-------|-------|-------|------|
| a  | 1      |        |        |        |        |        |       |       |       |      |
| b  | .42**  | 1      |        |        |        |        |       |       |       |      |
| c1 | .26**  | .16**  | 1      |        |        |        |       |       |       |      |
| c2 | .18**  | .12**  | .52**  | 1      |        |        |       |       |       |      |
| c3 | .24**  | .14**  | .70**  | .58**  | 1      |        |       |       |       |      |
| c4 | .21**  | .15**  | .61**  | .46**  | .70**  | 1      |       |       |       |      |
| d1 | -.23** | -.10** | -.21** | -.18** | -.23** | -.26** | 1     |       |       |      |
| d2 | -.23** | -.10** | -.17** | -.18** | -.23** | -.32** | .73** | 1     |       |      |
| d3 | -.16** | -.07** | -.16** | -.04   | -.16** | -.19** | .46** | .49** | 1     |      |
| d4 | -.25** | -.12** | -.30** | -.24** | -.34** | -.45** | .55** | .58** | .38** | 1    |
| M  | 5.24   | 5.31   | 2.52   | 2.01   | 2.25   | 2.37   | 1.71  | 2.46  | 1.26  | 1.36 |
| SD | 1.07   | 1.01   | .35    | .40    | .33    | .36    | 2.07  | 2.13  | 1.60  | 1.66 |
| S  | -.55   | -.20   | -.34   | .05    | .06    | -.27   | 1.57  | 1.00  | 1.85  | 1.78 |
| K  | .38    | -.48   | -.78   | .23    | -.07   | -.53   | 2.96  | .84   | 4.62  | 4.48 |

a=mother's happiness, b=father's happiness, c1=self-control, c2=cooperation, c3=responsibility, c4=assertiveness, d1=emotional reactivity, d2=unrest/depression d3=physical symptoms, d4=withdrawal.

\*\* $p < .01$

만족하고 있어 모든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30].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신체 증상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하위변인인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주장성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r=.12\sim.70$  사이에 분포되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하위변인인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주장성과 유아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변인과의 상관계수는  $r=-.16\sim.45$ 에 분포되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 3.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어머니의 행복감, 아버지의 행복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chi^2=482.765$ ,  $df=98$ ,  $\chi^2/df=4.926$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NFI, RFI, IFI, TLI, CFI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으며 RMSEA값이 0.52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변별하기 위해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를 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요인부하량의 경우 어머니의 행복감은 .65~.91, 아버지의 행복감은 .63~.92, 사회적 유능성은 .64~.78, 문제

행동은 .56~.87로 모두 0.5 이상으로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C.R(Critical Ratio) 값이 1.96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1]. 또한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정도는 최소한 .50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56~.68 수준으로 모두 .50이상으로 측정되어 최소한 .50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3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구조모형분석)

####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이론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성을 알아 보았다. 연구모형은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은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판단한다.  $\chi^2=482.765$ ,  $df=98$ ,  $\chi^2/df=4.770$ ,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NFI, RFI, IFI, TLI, CFI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으며 RMSEA값이 0.52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                      | $\beta$ | S.E. | C.R    | AVE |
|--------------------------------|----------------------|---------|------|--------|-----|
| mother's happiness             | mother's happiness1  | .91     | .028 | 38.832 | .68 |
|                                | mother's happiness2  | .92     | .029 | 38.914 |     |
|                                | mother's happiness3  | .78     |      |        |     |
|                                | mother's happiness4  | .65     | .036 | 25.574 |     |
| father's happiness             | father's happiness1  | .91     |      |        | .65 |
|                                | father's happiness2  | .92     | .019 | 52.123 |     |
|                                | father's happiness3  | .73     | .024 | 34.768 |     |
|                                | father's happiness4  | .63     | .030 | 27.863 |     |
| social Competence              | assertiveness        | .78     | .032 | 31.144 | .61 |
|                                | responsibility       | .89     | .030 | 34.825 |     |
|                                | cooperation          | .64     | .038 | 24.677 |     |
|                                | self-control         | .79     |      |        |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withdrawal           | .68     |      |        | .56 |
|                                | physical symptoms    | .56     | .042 | 19.112 |     |
|                                | unrest/depression    | .87     | .060 | 27.310 |     |
|                                | emotional reactivity | .84     | .057 | 26.9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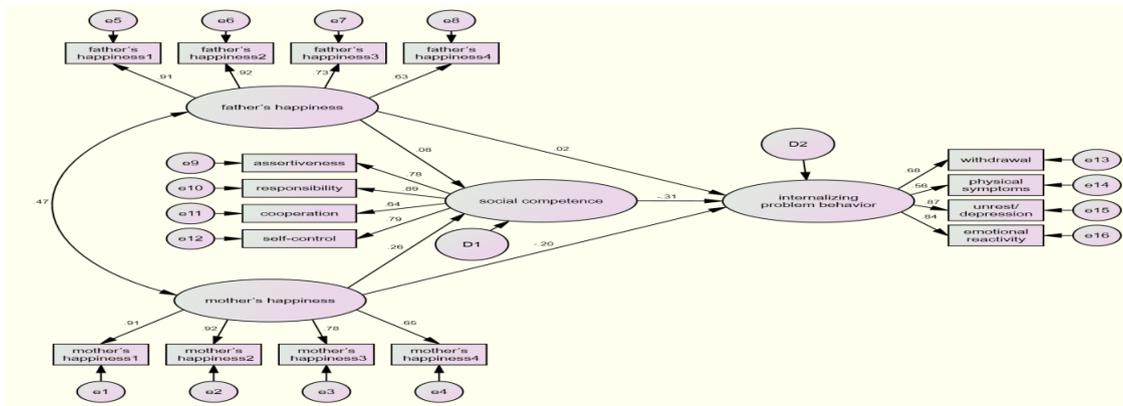


Fig. 1. Final model of the impac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final model

|                                |                                  | B      | $\beta$ | S.E. | C.R.   | P    |
|--------------------------------|----------------------------------|--------|---------|------|--------|------|
| mother's happiness             | → social competence              | 0.75   | .260    | .009 | 7.914  | ***  |
|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231  | -.199   | .038 | -6.000 | ***  |
| father's happiness             | → social competence              | .021   | .077    | .009 | 2.406  | *    |
|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017   | .016    | .035 | .502   | .615 |
| social competence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1.247 | -.309   | .127 | -9.853 | ***  |
|                                | → mother's happiness1            | 1.061  | .907    | 0.28 | 38.382 | ***  |
|                                | → mother's happiness2            | 1.123  | .922    | .029 | 38.914 | ***  |
|                                | → mother's happiness3            | 1.000  | .776    |      |        |      |
| father's happiness             | → mother's happiness4            | .927   | .646    | .036 | 25.574 | ***  |
|                                | → father's happiness1            | 1.000  | .915    |      |        |      |
|                                | → father's happiness2            | 1.015  | .924    | .019 | 52.123 | ***  |
|                                | → father's happiness3            | .839   | .729    | .024 | 34.768 | ***  |
| social competence              | → father's happiness4            | .844   | .631    | .030 | 27.863 | ***  |
|                                | → assertiveness                  | 1.011  | .781    | .032 | 31.144 | ***  |
|                                | → responsibility                 | 1.046  | .891    | .030 | 34.825 | ***  |
|                                | → cooperation                    | .928   | .639    | .038 | 24.677 | ***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 self-control                   | 1.000  | .787    |      |        |      |
|                                | → withdrawal                     | 1.000  | .679    |      |        |      |
|                                | → physical symptoms              | .793   | .555    | .042 | 19.112 | ***  |
|                                | → unrest/depression              | 1.642  | .865    | .060 | 27.310 | ***  |
|                                | → emotional reactivity           | 1.539  | .836    | 0.57 | 26.969 | ***  |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                    |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social competence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309***       |                 | .309***      |
| mother's happiness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199***      | -.080**         | -.279***     |
| father's happiness |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017          | -.024*          | -.024*       |
| mother's happiness | → social competence              | .260***       |                 | .260***      |
| father's happiness | → social competence              | .077*         |                 | .077*        |

\* $p < .05$ , \*\* $p < .01$ , \*\*\* $p < .001$

### 3.3.2 최종모형 분석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최종 모형을 Fig. 1에 나타내고 각 변인의 경로계수를 Table 4에, 그리고 잠재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과를 Table 5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문제행동( $\beta = -.199, p < .001$ )에는 부적영향을, 사회적 유능성( $\beta = .260, p < .001$ )에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행복감을 느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감소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beta = .016, p > .05$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회적 유능성( $\beta = .077, p < .05$ )에는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문제행동( $\beta = .077, p > .05$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주장성, 책임성, 협력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0, p < .01$ ).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감 역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4, p < .01$ ).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beta = -.199, p < .001$ ),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행복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beta = .016, p > .05$ )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ta = -.024, p < .01$ ).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높은 행복감을 가진 어머니들이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토대로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모한다는 연구결과[3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분리불안, 우울, 위축행동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20].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이 긍정적 심리 특성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특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에게서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27,33] 역시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복감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행복감을 포함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관련 변인들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행복감은 아니지만 부정적 심리특성인 아버지의 우울이 유아의 정서관련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4] 결과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역시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사회적 지식을 이해는 능력,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문제행동과 부적상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35]와 사회적 능력이 발달된 유아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결과[36]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주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행복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여 유아의 내재화 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각 변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감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로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각 변인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에서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발현되고 이는 자녀의 사회,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결국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연구[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부모의 행복감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및 지원들이 앞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행복감을 포함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로 부모들이 양육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과 양육방법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양육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8년 전인 2014년 패널 자료로 시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최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J. E. Choi, S. Y. Le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haviors and Preschooler'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3, No.3, pp.151-171, 2017.  
DOI: <https://doi.org/10.33770/iebd.33.3.8>
- [2] C. A. Van Hulle, K. Lemery-Chalfant, H. H. Goldsmith,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ocio-emotional behavior in toddlers: an initial twin study of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8, No.10, pp.1014-1024, 2007.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7.01787.x>
- [3] K. W. Lee, M. J. Kim, K. B. Yun, "Dual earner parents'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ssociations with warm parenting and early school-age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3, pp.141-156, 2018.  
DOI: <https://doi.org/10.5723/kjcs.2018.39.3.141>
- [4] Y. S. Kim, J. M. Jun, J. M. Kim, "The impacts of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young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7, No.3, pp.59-82, 2020.  
DOI: <https://doi.org/10.22155/JFECE.27.3.59.82>
- [5] Y. Kim, T. S. Han, H. J. Hwang,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ability and temperament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6, pp.277-299, 2004.
- [6] M. S. Poulou,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in pre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2, pp.225-236,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3-9828-9>
- [7] J. U. Lee, H. H. Choi, B. G. Park,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style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1, No.4, pp.275-296, 2012.
- [8] D. J. Whalen, C. M. Sylvester, J. L. Luby, "Depression and anxiety in preschoolers: A review of the past 7 yea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 Vol.26, No.3, pp.503-522, 2017.  
DOI: <https://doi.org/10.1016/j.chc.2017.02.006>
- [9] C. S. Lee, E. J. Hyun,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orality,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3, pp.223-238, 2008.
- [10] C. Wang, K. E. Williams, A. Shahaeian, L. J. Harrison, "Early predictors of escalating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middle childhood",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33, No.2, pp.200-212.  
DOI: <https://doi.org/10.1037/spq0000218>
- [11] M. H. Bornstein, C. S. Hahn, O. M. Haynes, "Social competence,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al adjustment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cascad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22, No.4, pp.717-735, 2010.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10000416>
- [12] S. W. Seo,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School Readiness through Mediation of Social Skill of 5-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4, No.3, pp.29-45, 2020.  
DOI: <http://dx.doi.org/10.32821/JPT.24.3.29>
- [13] M. S. Choi, "short-term longitudinal approach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ffect of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1, pp.221-240, 2014.
- [14] H. K. Chae, H. S. J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Related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cusing on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27, No.4, pp.199-217, 20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4.201712.199>
- [15] T. Y. Rhee, M. H. Kang,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Effectiveness of a Social Competencies Developmental Program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3, pp.293-324, 2001.
- [16] M. J. Park, J. H. Kang,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their parents'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infa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28, No.4, pp.331-352, 2012.
- [17] K. R. Ryou,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preschooler's ego-resilience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3, No.3, pp.289-298, 2014.
- [18] S. Lee,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2, pp.71-89, 2007.
- [19] S. H. Hong, J. H. Tak, H. M. Kang, "Effect of happiness on parental stress an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atisfaction level",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0, No.2, pp.73-91, 2014.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4.10.2.073>
- [20] Y. M. Kim, J. W. Ki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happiness and infants' social-emotional behavio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12, No.1, pp.285-302, 2011.
- [21] D. R. Kim, J. W. Kim,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6, pp.311-333, 2008.
- [22] S. O. Meadows, S. S. McLanahan, J. Brooks-Gunn, "Parental depression and anxie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cross family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9, No.5, pp.1162-1177,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7.00439.x>
- [23] M. J. Kim, H. I. You, "The effects of father's happiness on father-child interac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1, pp.44-65, 2020.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20.22.1.3>
- [24] M. J. Kim, J. W. Kim, "Between the Mothers' Happiness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tability, and Peer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4, No.2, pp.5-28, 2010.
- [25] E. Y. Kang, J. W. Kim, E. H. Kang, "The effects of fathers' happiness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fa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3, No.2, pp.253-278, 2019.  
DOI: <https://doi.org/10.21459/kccr.2019.23.2.253>
- [26]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1999.
- [27] F. M. Gresham, S. N. Elliott,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1990.
- [28] M. O. Suh,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K-SSRS: Teacher and Parent For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2, pp.223-242, 2004.
- [29] K. J. Oh, Y. A. Kim.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CBCL 1.5-5, Huno Consulting, 2009.
- [30] P. J. Curran, S. G. West,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16, 1996.  
DOI: <http://dx.doi.org/10.1037/1082-989X.1.1.16>
- [31] J. H.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New Jersey.
- [32] S. H. Landry, K. E. Smith., P. R. Swank, Responsive parenting: establishing early foundations for social, communication, and independent problem-solv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2, No.4, pp.627-642,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42.4.627>
- [33] S. W. Seo, S. K. Woo,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2, pp.519-539, 2016.
- [34] J. I. Yuh.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1, No.3, pp.333-351, 2015.
- [35] C. S. Lee, C. H. Lee,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3, No.5, pp.27-44, 2009.
- [36] J. S. Song, "Effects of children's social ability, temperament,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5, pp.143-161, 2003.

서 석 원(Seok-Weon Seo)

[정회원]



- 2012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발달, 부모교육